

을미사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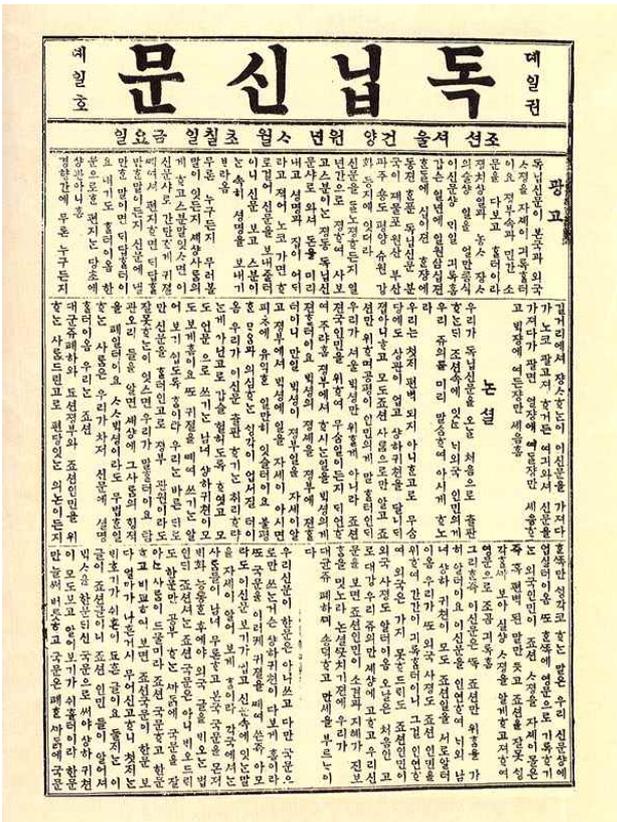


명성황후가 시해되었던 경복궁 안의 건청궁 옥호루

-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제는 조선의 정치에 간섭하기 시작함
 - 고종과 명성황후는 러시아 세력을 끌어들여 일본의 간섭을 막음
 - 을미사변 일본이 명성황후 시해한 사건을 을미사변이라 함 (1895)
 -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으로 처소를 옮김 (아관파천)
 - 이로써 일본의 입지는 축소되었고 , 러시아 영향력을 커지게 되었다.
-
- 명성황후는 1895년 일본 제국주의자들에 의해 궁궐에서 시해당했습니다.
 - 그리고 대한제국 선포는 1897년이므로 대한제국 기간에는 이미 명성황후는 돌아가신 뒤였습니다. ,
 - 일본을 배척하기 위해 실권을 갖고 갖은 수단을 동원하지만 결국 일본의 칼날 앞에 희생당하고 말았습니다.

대한제국

- 서양 여러나라 간섭이 심해짐
- 조선 정부는 조선이 자주국임을 알리고 백성들을 단결시킬 필요성을 느낌
- 갑신정변 이후 미국으로 망명했던 서재필 귀국
- 1896년 자주독립 위해 독립협회를 설립
- 독립신문은 우리나라 최초의 한국 신문으로 독립정신을 일깨워 줌
- 독립협회는 자주독립 의식을 고취하고자 청의 사신을 맞이하던 영은문을 열고 독립문을 세웠다.
- 만민공동회를 개최하여 나라일에 자신이 생각을 표현할수 있었음.
- 고종은 을미사변이후 러시아 공사관에서 1년만에 경운궁으로 돌아와 황제를 즉위하고 대한제국을 선포
- (대한제국 1897년 10월 12일부터 1910년 8월 29일까지의 조선의 국명)
- 대한제국은 근대적인 개혁을 추진함(근대적 학교, 근대적 공장과 회사 설립)



독립신문

